

# 광주, 청정대기산업 등 신산업 예산 확보 전남,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사업 반영

## 광주·전남 내년 국비 예산 신규 반영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광주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전남의 해상풍력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미반영되거나 국비 반영 규모가 턱없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차권의 집중된 역량과 광주·전남도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 신산업 관련 예산 확보, 미래 산업 개척 =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사업에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경제 회복 뉴딜사업 등이 대거 반영되면서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비사업에 반영된 신규사업 대부분이 광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들이어서 향후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광주의 미래 산업지도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 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첨단 3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의 미래 경제를 변화시킬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 사업으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지역ICT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50억원) ▲스마트형 제조혁신 데이터활용 기반조성(30억원)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58억원) 등이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사업을 이끌 계속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외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140억원)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104억원) ▲노사 동반 성장 지원센터 건립(84억원) 등 94건, 3511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의 뉴딜사업에 발맞춰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뉴딜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되면서 광주의 디지털 뉴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뉴딜사업으로는 ▲인공지능

**광주**  
친환경 차 부품 클러스터 140억 등 대부분 미래성장 이끌 신성장사업 경기 회복 중점...경제활성화 도움 첨단 3지구 진입로 등 반영 안돼

**전남**  
해상풍력 선점 전초기지 확보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기대 무안공항 확장·심뇌혈관센터 설치 대통령 공약 대거 미반영 아쉬워

디지털파크 및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70억원) ▲무인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실증(30억원)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 기반 구축(25억원) ▲수평적EV(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사업(20억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38억원) 등이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도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30억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육성 3호 펀드 출자(100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51)억원 등 87건에 1556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31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08억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74억원) 등 사회 안전망 확충과 청정 환경 구현 사업도 51건에 1조6556억원이 포함됐다.

민주인권 안전체계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도 국비 사업에 5·18 자유공원과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 사업(15억원), 5·18 피해자 실체조사 용역 사업(5억원), 솔로몬포파크 건립(37억원) 등 44건, 333억원이 반영됐다.

◇전남, 유망산업 '해상풍력 선점', 대통령 공약 대거 미반영=전남도는 신규사업 97건에서 모두 3025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발전 기틀을 구축했다.

여러 신규 사업 가운데 세계적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해상풍력 관련 사업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주목된다. 이 사업은 목포 대양산단에 해상풍력 조성 및 운영 전주(임지조사, 물류플랫폼 구축, 유지보수)기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연구 개발 및 장비구축비 명목으로 37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신안 해상에 9.3GW(원전 10기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노리는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미래 신산업으로 평가받는 해상풍력산업의 전초기지를 확보하고, 선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국제행사 개최, 대통령 공약사업 등 전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삭감 반영되면서 우려를 키운다.

현행 2800m 활주로를 3200m 이상으로 늘리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경우 150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나 20억원만 반영됐다.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철 건설사업은 1134억원을 건의했으나 187억원 반영되는 데 그쳐 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900억원 가운데 설계비 명목 등으로 20억원을 건의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신안 천사대교 보행로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비(4억원) 역시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 말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예산도 정부안에 미반영됐다. 박람회 총사업비 485억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건의한 인프라 구축사업비 20억원이 정부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 사업, 국립 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관련 내년도 사업비(각각 167억원, 15억원) 역시 전액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및 내부 순환도로 개설, 심뇌혈관센터 설치 사업 등 정부예산안 반영에서 제외되거나 건의액이 요구액을 크게 밑돈 사업들은 하나같이 문제인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도심에 '바람길 숲' 조성 미세먼지·열섬 잡는다

## 2022년까지 200억원 투입 "도심 온도 상승 억제 효과"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200억(국비 100억원·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도심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바람길 숲은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 공기 순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과 뜨거운 공기

를 배출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산림과 도시 내부의 숲을 연결한 것을 말한다.

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찬 공기가 주거 지역까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공기 순환을 유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완화에 기여하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공유자·공공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조사 중이다.

조사와 설계를 완료하고 바람생성 숲, 연결 숲, 디딤·확산 숲 등 다양한 형태의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바람생성 숲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는 것, 디딤·확산 숲은 기온 차를 통해 미풍을 생성하는 것, 연결 숲은 가로수 등으로 바람생성 숲과 디딤·확산 숲을 연결하는 것이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워지는 광주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돼 도심 경관 향상, 도심 온도 상승 억제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어학교 비대면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목포대어울림아카데미에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 귀어학교가 주관한 '귀어기술 교육 2기 패류양식 및 가공 유통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 어촌으로 귀어할 20여 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귀어에 필요한 어업 및 양식기술, 어촌계 가입 조건, 귀어정책 안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걸맞는 프로젝트 개발 절실"

## 김영록 지사 공직자 도전정신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에 걸맞는 프로젝트 개발이 절실하다"며 "공직자들의 부단한 도전정신"을 주문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남의 주축산업인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서비스업, 항공해운업, 농수산업 등 관련 업종들의 경쟁력 감소가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큰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가진 9월 정례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이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전정신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블루 이코노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프로젝트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보고 도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확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렴도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이어 세대 간 건전한 직장문화도 강조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단한 경청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실제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에 들어설 경우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청사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20% 정도 재택근무나 연가, 유연근무 등 나름의 비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철저한 자기관리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8호 태풍 바비에 이어 9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할 경우 우리 지역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폭우와 지난 태풍이 산사태, 제방붕괴 등을 경험삼아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특히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특단의 점검"을 지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